우리 동네 핫플
이 가게 어때?

금바우

달서구 용산큰못갈길 30
예약문의 ☎053-522-5792

'22년 전통'의 생고기 맛집

살아있는 신선함과 여사장님의 손맛으로 승부

달서구 용산지하도 근처에 자리한 '금바우'는 그야말로 숨겨진 용산동 생고기 명소다.

용산1동 육교에서 용산서한화성2차 아파트와 주택가 골목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22년 동안 변치 않은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널리 사랑받아 왔다.

기존 단골손님들은 물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줄을 잇는 '금바우'의 인기는 단순히 오랜 역사를 자랑해서만은 아니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6개의 테이블이 있는 내부는 아담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손님들이 조용히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을 제공한다.

입구에서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여사장님의 친근한 인사 덕분에, 이곳을 찾는 이마다 마치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대표 메뉴는 신선한 '생고기'와 '육회'다. 특히 이곳 '생고기'는 접시를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신선함을 자랑한다. 고기의 탱탱하고 쫀득한 식감은 한 점씩 먹을 때마다 입안에 감기는 깊은 풍미를 선사한다. 이와 함께 제공되는 양념장은 특별하다. 고소한 참기름에 생마늘을 으깨어 넣어, 은은하게 퍼지는 고소함이 생고기의 신선한 맛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든다.

이 외에도 '금바우'에서는 대창구이, 곱창, 문어, 낙곱전골, 곱창전골, 버섯전골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 고객의 입맛과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는 폭이 넓다.

특히, 전골은 날씨가 선선해지는 이맘때부터 큰 인기를 끄는 메뉴로, 신선한 낙지와 곱창, 각종 채소, 당면, 새우 등 몸에 좋은 재료가 듬뿍 들어가 있다. 전골이 보글보글 끓을 때 가득 퍼지는 향은 입맛을 돋우며, 따뜻한 국물과 함께 한술 뜨다 보면 술 한 잔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국물이 깊고 부드러워 식사를 마치는 순간까지도 온기가 남아 있어 가을, 겨울철 몸을 녹여주기에도 그만이다.

'금바우'의 반찬 역시 여사장님의 정성과 손맛이 깃든 것으로 유명하다. 기본 반찬에는 콩나물국, 묵채, 간, 천엽, 땅콩멸치볶음, 부추전, 간장두부, 번데기, 소라, 도라지무침 등 정갈하면서도 풍성한 한 상이 차려진다. 반찬이 부족해 보일 때면 여사장님이 손님을 살피며 직접 더 챙겨주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이곳의 특징 중 하나는 개업 이래로 변치 않은 맛과 정성스러운 서비스다. 손님을 위해 항상 신선한 재료를 엄선하며, 요리마다 여사장님이 손수 준비한 양념을 더 해 최고의 맛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여사장님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접대를 오랜 세월 변치 않고 이어온 이곳의 매력으로 꼽는다.

"이런 맛과 분위기는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며 똑같은 맛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게 이곳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 아닐까요?"라며 단골손님들은 입을 모아 칭찬한다.

금바우는 오후 5시~새벽 2시까지 운영되며, 저녁부터 늦은 시간까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편리한 시간을 제공한다.

22년간 지역 주민과 단골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온 '금바우'는 단지 음식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곳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정성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장소이며, 수많은 추억과 이야기가 켜켜이 쌓인 곳이다. **한소영 객원기자**

우리 지역 달서구·달성군의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모든 지면 광고 50% 할인해드립니다.
문의 : 053)572-6000